

스마트 팜 관련 스크랩

2019. 5.1. ~ 5. 7.

페이지	제목	비고	유형
2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1720만불 수출	농촌여성신문	인터넷
3-4	대한민국농업의 공유 자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부매일	인터넷
5-8	2022년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모습은?	Venture square	인터넷
9-11	“농업도 첨단산업” ...농식품부 전국 4곳서 스마트 팜 거점 육성	이데일리	인터넷
12	농식품부 청년 농촌보급자리 사업에 상주시 선정... 2020년까지 80억원 투입	농수축산신문	인터넷
13-14	전북도, ICT로 농업환경 리모델링한다	파이낸셜 뉴스	인터넷
15	장성군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팜 육성	광남일보	인터넷
16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설명회 개최	뉴스메이커	인터넷
17-18	상주시, 스마트 축산 구현에 박차	Breaknews	인터넷
19-21	에이아이에스(AIS), 감자 최대 수확량 올리는 '노지 스마트팜' 개척자	리더스경제	인터넷

뉴스
기관/단체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1720만불 수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북방시장 개척 플랫폼 활용 성과

가형서 기자 | 0103653@naver.com



▲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카자흐스탄 관계자가 스마트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과 연계해 지난달 22일 코트라(KOTRA)가 주관한 ‘한-카자흐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총 24ha 규모의 딸기·오이·토마토용 스마트팜 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한국기업체인 (주)나래트랜드와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 2개사와의 계약으로 총 계약액은 1720만 달러다.

이외에도 재단은 한국형 스마트팜의 우수성을 현지에 알리기 위해 코트라와 공동으로 행사장 내 ‘한국형 스마트팜 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현지 4개 업체로부터 17ha, 약 12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추가 설치 요청을 받았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5월 ‘재단-카자흐스탄 국립 과수원예연구소’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스마트팜 시스템·양액시설·온실설비·국내 토마토품종’을 패키지로 묶어 성능을 검증하는 현지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의 결과다.

재단은 중앙아시아의 허브 카자흐스탄 테스트베드를 농업분야 북방시장 개척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스마트팜 패키지’가 러시아 극동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현지 KOTRA 무역관과 협력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바이어를 초청해 ‘스마트팜 패키지’ 시연회를 개최하고, 한국 기업들과 수출 상담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대한민국 농업의 공유 자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 [기고] 박상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지역으로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로써 작년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선정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를 위해 충북도와 제천시 농업인들을 포함한 민관이 지난 몇 개월 간 혼연일체가 되어 뛰었으나 안타깝게도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혁신밸리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준비한 만큼 그에 따른 충북도와 제천시의 충격과 실망감도 클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를 담당한 과장으로서,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충북도, 제천시 공무원들이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뜨거운 열정에 대해 따뜻한 박수와 위로를 보낸다. 도민들과 제천시민들도 일단의 실망감은 묻어두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란다.

금번 공모 과정에는 총 5개의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공모 기간 내내 긴장하면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치도 방심할 수 없었다. 사전에 공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 외부의 어떠한 부당한 영향이나 평가기준 외적 고려는 배제되었다.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지역농업인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한 점, 지역에서 자체 개발한 육종 품목 중심의 수출 및 에너지 비용절감, 기자재 국산화 등 연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결과만 보면 제천시로서는 많이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제천과 충북의 농업이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담당 과장으로서 금번 절차를 거치면서 약용작물, 한방제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충북의 계획에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고, 앞으로도 충북도와 제천시가 변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한다.

일부에서 이번 공모 사업을 대규모 시설단지로 오해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잠시 소개한다. 혁신밸리는 청년보육과 기술혁신의 기능을 위한 시설이 주된 요소이다. 스마트팜을 모르는 청년들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스마트팜 전문교육과 임대형 스마트팜을 혁신밸리에서 지원한다. 더불어 관련 기업들이 스마트팜 농자재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우리 대한민국 농업계 전체가 같이 이용할 인프라이다. 이곳에서 배출되는 청년 농업인들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가서 지역 농업의 중추로 성장할 것이다. 충북의 젊은 농업인들도 혁신밸리에서 교육 받고 나면 고향에서 시설원예를 본격적으로 영위하리라고 본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혁신밸리에서 배출되는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 농업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지역의 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충북도, 제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고자 한다.



박상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결과 발표 이후에 농업계와 탈락한 지자체의 반응을 접할 때 고통스러웠다. 그간의 노력보다 결과가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다. 결과가 나온 뒤 우리를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했던 충북도 관계관의 모습이 무겁게 다가온다.

2022년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모습은?

민혜진 기자 / 입력 2019년 4월 30일

"2022년까지 전국 4개 거점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할 것이다. 이곳에 유통, 생산, 교육, 연구를 집약해 스마트팜 시장 규모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농림산업식품부 박상호 농산업정책과장이 26일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개막한 귀농귀촌청년창업박람회에서 스마트팜 전망과 확산정책을 전했다.



스마트팜은 IoT, 빅데이터를 비롯한 ICT 기술을 활용해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것. "투입재와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안정적 생산과 수요 기반 생산을 통해 수출 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 전문재배사, 시스템 개발자를 비롯한 직업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상호 과장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 기술력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4~5년 정도 늦었다고 본다.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듣고는 있지만 농업과 ICT 융합 기술 수준이 미국에 비하면 70~80% 가량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관련 기초연구와 민간 주도 R&D를 지원, 기자재 기업이 제품 테스트를 할 실증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산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정부는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2022년까지 구축하고 그 안에 스마트팜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인보육센터, 실증단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보육센터 수강 청년 대상 보금자리 주택 마련도 관련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 이미 경북 상주, 전북 김제가 지난해 거점 지역으로 선정됐고 최근 경남 밀양, 전남 고흥이 나머지 2개 지역으로 선발됐다.

혁신밸리 시설 중 실증단지는 자율·공공실증구역, 체험장, 전시관, 빅데이터센터와 스타트업 센터, 행동·분석센터로 구성된다. 해당 구역은 박상호 과장이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곳.

먼저 실증구역은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 기업이 상품화에 앞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품 출시에 앞서 실제 농가에서의 검증이 필수적인 데 반해 일반 농가는 이를 환영하지 않는 점에 주목한 것. 전시관과 체험장은 각각 바이어, 투자사 대상 기자재 전시 및 상담과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며 나머지 시설에서는 수요맞춤형 R&D 바우처 제공과 민간투자 유치 컨설팅, 경제성 분석을 지원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농가에서 실제 설비를 마련하는 데 적게는 15억에서 많게는 30억 넘는 비용이 든다는 점을 수용, 초기 비용에 따르는 위험을 줄여주고자 마련한 방안. 2021년까지 지자체, 농어촌 공사 부지를 활용해 24헥타르가 조성될 계획이다. 박상호 과장은 "임대료는 운영비용과 기대소득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이라며 "보육센터 수료생과 기업에 3년간 임대하며 평가를 거쳐 2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 수마트팜 수출사업 연구단을 통한 관련기술 연구와 실질 수출 지원, 중동, 중앙아시아 기술협력 추진 계획도 소개됐다. 또 빅데이터 수집·공유 체계, 그 중에서도 병해충 데이터와 환경생육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를 강화해 병해충 예보·방제 의사결정 서비스와 품목별 최적 생육 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스마트팜 실제 적용과 보급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일부 농민단체는 스마트팜이 확산되면 생산량이 늘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상호 팀장은 “매년 과수농가가 2천 가구씩 줄고 농지면적은 1천헥타르 가까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그래서 역량 있는 청년, 비농업 인구의 산업 유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스마트팜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밸리에 들어설 청년보육센터는 이론과 실습 교육 각각 2개월과 6개월, 이어 10개월 경영 교육을 제공하고 창농의 모든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교육에 이어서는 농업법인 취업 알선, 월 10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 벤처창업센터 취업 컨설팅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호 과장은 “지난해 3개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했고 각각 교육생 5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인력을 500명 가까이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는 실내에서 농산물을 키워 바로 섭취하는 게 일반화될 것이다. 농업과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물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스마트팜이 더욱 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팜이 여전히 예비 농업인과 현업 농업인에게는 낯선 것이 사실”이라며 “두려움이 없이는 희망도 없다는 말이 있다. 기업, 청년, 종사자가 모두 두려움을 극복하면 국내 농업에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도 첨단산업”...농식품부 전국 4곳서 스마트 팜 거점 육성

[이데일리·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작년 김제·상주 이어 올해 고흥·밀양 1800억씩 투입

ICT 접목해 편의성·생산성 극대화...전국 확산 모색

“인력양성·기술혁신 통해 미래 농업경쟁력 키울 것”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까지 전국 네 곳에 스마트팜 거점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미래 첨단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올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보육센터와 임대농장, 실증단지 등 핵심 시설 착공에 나선다. 지난해 먼저 선정한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함께 전국 네 곳의 거점을 확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전국 네 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키로 하고 2022년까지 한 곳에 1800억원씩 총 7200억원을 투입해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스마트팜은 기존 농업에 ICT를 접목해 농가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농장이다. 온실이나 축사 내 카메라와 센서, 온습도 조절기, 급수기 등을 설치하고 이를 스마트기기 와 연결해 농장주가 외부에서도 농장 상태를 살피고 온습도나 급수를 조절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장주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농작물이나 가축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네 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 기업과 연구기관을 위한 실증단지로 구성된다. 이곳에선 스마트팜 핵심 기술인 센서와 복합환경 제어기를 개발하고 실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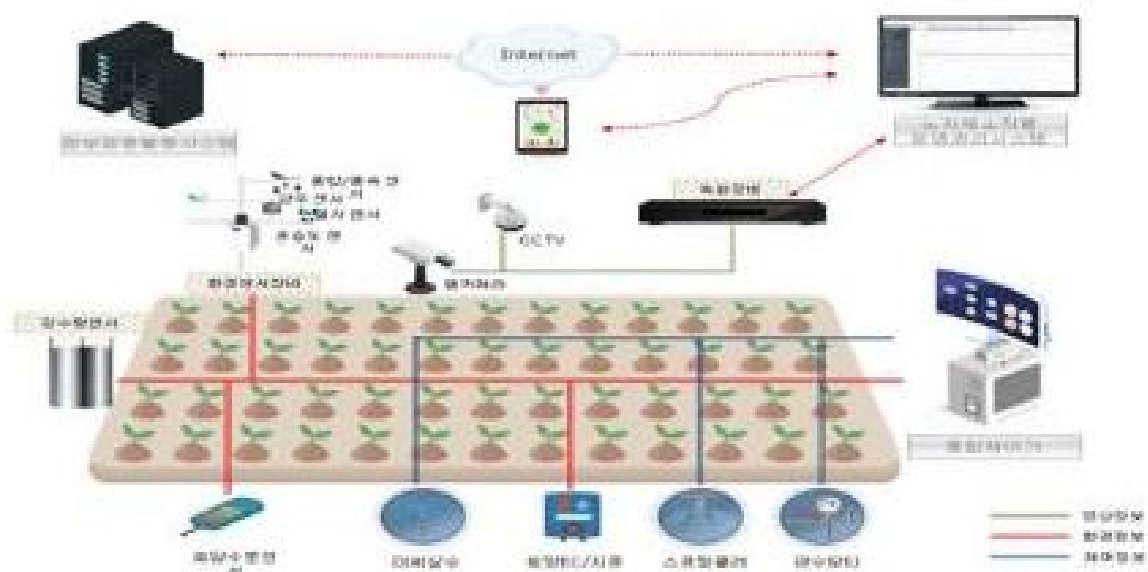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와 수출형 플랜트도 개발한다. 또 이곳 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이르면 2021년부터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또 이곳에서 최대 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1월 소개한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농진청 제공

한국형 스마트팜 플랫폼 수출 성과도 나오기 시작했다.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달 민간 기업인 나레트랜드제이엠농자재와 함께 420만달러(약 47억원)어치의 스마트팜 설비와 농자재, 품종 패키지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했다. 러시아나 남미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수출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을 기점으로 현장 농업인을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을 계속 늘릴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축산노지 등 농업 전 분야로 스마트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 구현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상주시 선정... 2020년까지 80억원 투입

장인식 기자 | 승인 2019.05.02 16:30

[농수축산신문=장인식 기자]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상주시 '경북상주 청년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대상 지구는 상주시를 비롯해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구로, 2020년까지 한 곳당 80억2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된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은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보육부담 완화와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늘리기 위해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30호 안팎의 농촌형 공동임대주택과 육아 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을 조성한다.

상주시의 청년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사업은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사업비 1600억원)'과 연계해 그 사업부지 내에 30세대 규모의 농촌형 공동임대주택과 2층 규모(1층 동아리방·공동연구실·회의실·작은 도서관, 2층 다목적실·체력단련실)의 커뮤니티 시설 1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특히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상주시의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선정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과 활력 창출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ICT로 농업환경 리모델링한다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9.05.01 10:34 | 수정 : 2019.05.01 10:34



/연합DB

【전주=이승석 기자】전북도 1일 시설원에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스마트팜 확대 구축을 위해 1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시설 온실에 도입, 작물 재배환경을 최적화해 생산성과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원에 ICT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시설 외부 온도, 풍속, 조도 내부의 온·습도, 토양수분, 양액 전기전도도(EC)·산도(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장비 및 영상장비, 환풍기, 천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를 지원한다.

스마트 농장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 농장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북 미래 농업을 이끌 주력기술로 기대되는
이유다.

도는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87농가에 60여억원을 지원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물국장은 “빠르게 발전해
가는 농업기술에 발맞추고 지속적으로 스마트팜
확산에 노력해 시설 농업의 전국적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며 “민선7기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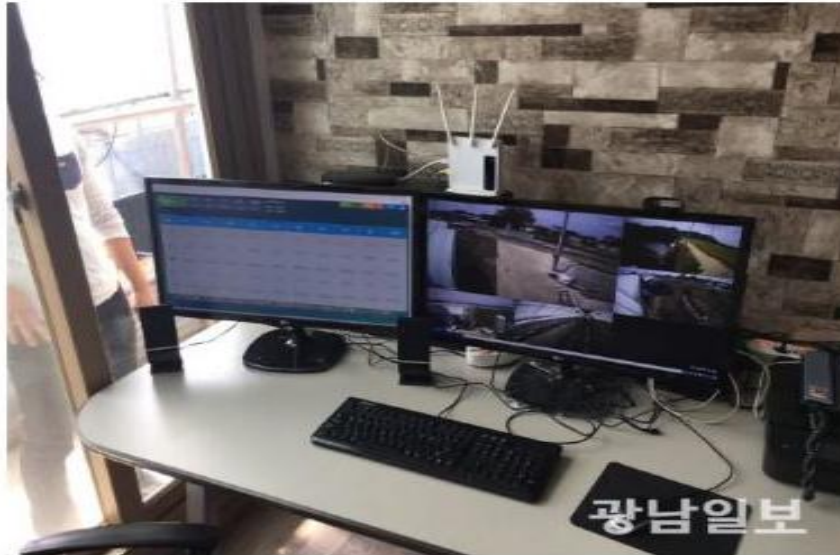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장성군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팜 육성

2022년까지 사업비 10억원 투입...24ha 확대 보급

입력 : 2019. 05.07(화) 11:35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성군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언제 어디서나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스마트팜은 IC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기술 등을 융복합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농장이다.

군은 ICT기술을 융합한 과학영농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 지역 전체 하우스 면적의 10%인 24ha까지 스마트팜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1차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하거나 관심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활용한 작물재배관리교육, 스마트팜 농업인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딸기 재배농가 7개소를 스마트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스마트팜 도입 농가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농장을 직접 가지 않고도 온실의 온습도 조정, 환기창 개폐,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에 생산의 편리성을 높이며 작물 생육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해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안전하고 계획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스마트팜 시설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데이터 분석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설명회 개최

2019년 06월 06일 (일) 23:67:17

최창윤 전문기자 ✉ choipress@newsmaker.or.kr



▲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설명회/최창윤 기자(사진=고흥군)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3일 군 우주홀에서 농업단체 및 기관·사회단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 농업단체 및 기관·사회단체장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고흥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통신 신기술 접목과 에너지 활용, 관광시설 연계 등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귀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모델을 조성하겠다”며 “기관, 사회단체, 농업인 관련단체의 많은 조언과 의견을 들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사업은 오는 2022년을 준공을 목표로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일원 29.5ha에 총사업비 1,056억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상주시, 스마트 축산 구현에 박차

【브레이크뉴스 경북 상주】이성현 기자= 상주시는 스마트 팜 활용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지난 3일 상주시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에서 관내 축우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IOT 축우관리시스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 축산분야 IOT 축우관리시스템 사업 설명회 개최 (O) 상주시

'IOT 축우관리시스템 사업은 번식우의 정확한 발정 탐지, 분만알림 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표준 사업비는 두당 30만원(보조80%,자부담20%)으로 상주시는 예산 4억 4백 8십만원에 68명이 예비신청을 받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상주시 주관으로 라이브텍, 리얼팜, 대동테크(히트쿨), 우양코퍼레이션, 파우스 5개 ICT 업체를 초청하여 IOT 축우관리시스템 활용, 제품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는 “지루한 축산정책이나 사업설명인줄 알았는데, 축산업 현장 눈높이에 맞는 ICT 업체들이 직접 설명을 해줘 업체간 기술, 가격 등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ICT다, IOT다, 스마트 축산이다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궁금증과 답답함이 풀렸다”며, 뜻 깊은 말을 전했다.

안영목 축산과장은 영농 준비에 분주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비사업자 농가들이 모두 참석하데 고마움을 전하며, “스마트 축산 구현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만큼 ICT기술 보급을 통한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이아이에스(AIS), 감자 최대 수확량 올리는 '노지 스마트팜' 개척자

기업탐방-에이아이에스(AIS)

드론·기상대 등 통해 재배 감자 각종 정보 수집
자체 개발한 '생육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분석
감자 생육 최적의 재배관리 도출...농가에 서비스



▲ 경남 밀양에 있는 감자 재배지에서 AIS 직원이 드론을 활용해 감자 생육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모습.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노지 감자 재배지 상공을 분광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날아다니며 태양빛에 반사된 작물에 빛의 세기를 파장대별로 정보를 수집한다. 감자재배지 한 켠에 설치된 기상대는 기상 데이터를 모은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리모트센싱(원격 탐사) 모니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감자작물에 대한 생육 정보와 기상대 및 기상청 기상 정보를 통해 수집한 현장기상 데이터를 작물 생육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적용하면 감자 재배에서 최대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생육단계별 재배관리 조건들이 도출된다. 4차 산업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날, 기술력이 돋보이는 스마트팜 솔루션 서비스업체인 에이아이에스(AIS)가 국내 스마트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 민간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노지 작물 생육 스마트팜 재배관리 기술 선보여

부산지역 기술창업의 요람인 해운대 센텀(CENTAP, 센텀기술창업타운) 내 있는 AIS는 2017년 11월 설립돼 만 두 살도 채 되지 않는 기업이다. 하지만 이 회사가 보유한 4차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 농업 혁명을 이끌어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기술 등을 융복합해 온·습도 조절 등 온실 작물 생육 환경이나 여건을 제어하는 수준에 머무는 현재 국내 스마트팜 형태와는 달리 노지에서 작물 생육 중심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팜 재배관리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노지 작물 생육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팜 재배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국내에서 AIS가 유일하다.

이 업체는 감자 작물에 대한 품종, 토양조건, 생육조건, 기상 정보, 농가 재배관리 조건 등 감자 생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드론과 기상대를 통해 현장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이어 자체 개발한 작물 생육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분석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농작업 재배관리 방법을 도출해 농가에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팜 솔루션 서비스를 '잘키움 서비스'라고 한다.

최적의 농작업 재배관리 솔루션인 '잘키움 서비스'를 무료로 농가에 제공하는 대신 농가에서 수확한 작물을 전량 사들이는 계약재배로 작물을 확보해 이를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AIS 비즈니스 모델이다.

수많은 재배 작물 가운데 이 회사가 감자를 선택한 데는 생육 방법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이기 때문이다.

'잘키움 서비스'는 작물생육과 관련된 재배관리를 최적화해 모두 제공해 농사 초보자도 쉬운 영농을 실현할 수 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투입되는 제반물품을 제공하고 생산물을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판로확보까지 해결하는 원스탑 서비스 제공도 돋보인다. 기존 계약재배 금액 대비 높은 가격 구매와 농가 경영비용 감소로 한 작기당 약 226만원 이상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작물 생육상태를 가시화해 수확물 생산이력을 쉽게 확인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감자 재배와 관련된 재해에 유연하게 대처해 농산물 생산 안정성 증대 및 수확량 증대를 꾀할 수 있다.

◇ 작년 가을 감자서 시스템 검증 마쳐…올해 2200여평 자가영농 돌입

AIS는 작물 생육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이후 지난해 가을 첫 시험 감자 재배에서 시스템 검증을 마쳤다.

경남 밀양 991㎡(약 300평) 규모 농가에 ‘잘키움 서비스’를 제공해 첫 시험재배에 나선 결과, 태풍 및 서리방지 등 재배관리를 통한 위험요소 제거로 생산 안전성을 유지해 농가소득이 23% 증가했다. 더군다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온 결과다.

감자 파종 3일전부터 드론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감자 재배지 수로와 두둑 등 방향을 바꾸고 감자 재배 기간인 약 4개월 동안 매일 생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한 정보 분석으로 다시심기, 토양 미생물 처리 등 재배 작물 스트레스를 생육단계별로 관리했다. 게다가 기상대 및 기상청에서 수집한 현장 기상데이터를 활용해 감자 주요생육단계 변화를 1~2일 앞서 예측해 침수, 서리 등 생육단계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처했다.

생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감자 작물 특정생육단계마다 스트레스는 줄이고 최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재배관리만으로 생산량이 23% 증가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더군다나 일반 농가에서는 당시 재배 기간 서리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못해 상품성 좋은 감자를 재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수확시기도 빨랐다. 반면 ‘잘키움 서비스’로 생산한 감자의 경우 상품성이 좋은데다 수확 시기 조절에 따른 적절한 출하 시기로 20% 가량 높은 가격을 받기도 했다.

첫 시험재배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AIS는 올해에는 지난 2월부터 경남 밀양 2200여 평 규모 감자 재배지를 임대받아 자가영농에 돌입했다. 작물 생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직접 감자 재배에 나선 것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경남 밀양 감자 재배 농가 3곳(1만 5000평 규모)에 기술 프로모션 서비스 제공도 진행할 예정이다. AIS는 이들 농가와 올해 ‘잘키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험 재배를 진행한 뒤 내년에는 정식 계약재배에 나설 예정이다.

AIS는 올해 예상 매출 4억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도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에는 자가영농 규모를 늘려 3만 여평에서 감자를 재배할 계획이며 관리농가도 20곳으로 늘려 연매출 2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S는 감자 작물 이외에도 벼, 옥수수, 콩, 보리, 밀 등 다른 작물에도 생육 시뮬레이션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만큼, 작물 대상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석 AIS 대표는 “농민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소비자들은 안정적인 물가를 보장받아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업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